

글쓰기 과목의 수업 방안 모색*

—공주대학교 <창의적 사고와 표현>의 수업을 중심으로—

조용림(공주대)

< 목 차 >

- | | |
|---------------------|------------------------|
| 1. 시작하는 말 | 3.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자기분석 |
| 2. 창의적 사고와 테마 찾기 방안 | 4H 쓰기 방안 |
| | 4. 끝맺는 말 |

1. 시작하는 말

힘든 입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그동안 누군가에 의한 '이끌림'으로 정해진 과정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온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행위의 주체자로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4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의 결과들이 교양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교양교육의 강화를 위해 과목의 개편 때마다 교수자는 다양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토론을 거친다. 이러한 논의 후에

* 이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179).

교양교육을 강화하였는데도 그 과목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교양교육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교양필수과목의 지정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학생들은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삶에 대한 사고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관련 과목이 생겼으며, 대학의 목표 달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수동적인 삶이 행위의 주체자로서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글쓰기 수업과 관련한 연구는 대학 (교양)글쓰기의 틀을 마련한 연구,¹⁾ 대학 글쓰기 교육의 시스템에 대한 연구,²⁾ 각 대학 글쓰기 교육의 사례에 대한 연구,³⁾ 대학 글쓰기 교육의 수업 방법에 대한 연구⁴⁾가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주로 글쓰기 과목의 중요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들부터 글쓰기 교재 및 평가를 위한 연구, 각 대학의 글

-
- 1)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창간호, 한국작문학회, 2005, 111-136쪽. 김인환,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어문논집』 61, 민족어문학회, 2010, 5-26쪽.
 - 2) 최상민,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평가'의 문제」, 『한국언어문학』 64, 2008, 147-170쪽. 광경숙, 「대학 글쓰기 교재의 비교 분석」, 『한국언어문학』 68, 2009, 111-135쪽.
 - 3) 최상민,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전남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 2007, 183-206쪽. 하병학,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정과 과제-가톨릭대학교의 사례-」, 『사고와 표현』 1-1, 2008, 115-144쪽. 박은미, 「건국대 글쓰기 영역 수업 사례 연구」, 『사고와 표현』 2-1, 2009, 155-172쪽. 박현희,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사고와 표현』 2-2, 2009, 165-190쪽. 박호관, 「대구대학교 공통 교양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탐색」, 『우리말글』 49, 2010, 87-109쪽. 송지연,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창의성 훈련 시론」, 『한어문교육』 26, 2012, 149-179쪽.
 - 4) 김민정,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반성적 쓰기의 활용과 의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5, 2009, 451-480쪽. 정혜영, 「공학교육인증제와 과학기술 글쓰기」,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5, 2009, 429-449쪽. 박현이·김화선, 「협력학습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12, 2011, 333-358쪽. 이양숙,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0, 2011, 169-189쪽.

쓰기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각종 교수·학습 방법론을 집목한 연구들이 있다.

공주대학교는 글쓰기 관련 과목(의사소통기술, 발표, 토론 등 포함)들이 통합되어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하 <사고와 표현>)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이 과목은 '창의성, 사고, 표현'을 핵심 요소로 사회적 필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마련되었다.⁵⁾ <사고와 표현>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실용 글쓰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양 글쓰기와 전공 글쓰기를 함께 배양할 수 있는 통합교과로서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글쓰기 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개설된 <사고와 표현>이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주고, 이러한 부담이 결국에는 글을 읽고 쓰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2장은 기존의 글쓰기 방식과 유사하지만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하였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통해 즐거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활동과 테마 찾기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맞춤법은 강의식이 아닌 오류 찾기 활동으로 타인의 글을 보면서 좋은 글, 올바른 글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장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과정으로 '자기분석 4H' 쓰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소개서'에 '자기'가 없으며, '진실'의 글이 아닌 '타인의 삶', '복사'한 글들만 무의미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자기분석 4H' 쓰기를 제안한다.⁶⁾ 글쓰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쓰려고

5) 이전부터 교육되던 '대학국어'와 같은 교양과목을 대신하여 새로운 과목들이 등장했다. '언어', '문학', '한문',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 세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던 과목들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 여부는 학점 취득이 용이한 과목들에 집중되어 통합적 사고능력을 기르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본고는 글쓰기 교육을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노력하는 능동적 쓰기가 글쓰기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2. 창의적 사고와 테마 찾기 방안

2.1. 창의적 사고와 글쓰기의 연계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영’, ‘창의적 인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하는 단어들이다.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A=B$ 의 정확한 도식이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도 창의·창조의 개념이 주류로 떠오르고, 몇몇의 과목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다. 시나브로 창의·창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창의성과 글쓰기

창의성(creative personality)이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유형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⁷⁾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는 기존의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영역으로부터 새로운 변형을 만드는 행위나 사고·작품을 창의적이라 말하며, 창의적인 사람이란 한 영역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①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갖는다. ② 국어정서법을 지키지 않는다. ③ 메시지 전달이 부족하다. ④ 긴 글은 물론 짧은 글도 읽지 않아 독서량이 부족하다.

이 결과는 2012학년도 1-2학기, 2013학년도 1학기의 개강과 종강 때 실시한 설문 결과로 종합한 것이다. 문제점의 내용 중 ④항은 제외한다. ①, ②, ③항은 각각의 활동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지만, ④항은 수업 전후를 이용하여 읽기 자료의 배포 및 내용 정리, 감상, 자신의 의견(또는 주장) 쓰기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7) 토랜스(E.P. Torrance)는 창의성의 과정을 ① 어떤 문제·결핍·격차 등에 민감한 것, ② 문제나 곤란을 추측하고 형성하는 것, ③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재검증하는 것, ④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영역을 만들어내는 사고나 행위를 하는 존재라고 말한다.⁸⁾ 이 외에도 창의성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다양하지만 창의성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의 답변 중 '새롭고, 이전과는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창의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정하지 않으면 그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생각에 몰두보다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⁹⁾ 그리고 창의적인 업적은 갑작스러운 통찰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창의성이 생겨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고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규정한다.¹⁰⁾ '사고의 과정'을 글쓰기에 접목할 때의 창의성은 단어, 메모, 문장 등을 쓸 때도 발휘된다. '사고의 과정'을 거친 내용들이 검색이 아닌 사색을 통한 것이라면 창의적인 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결과를 붙여넣기(Ctrl+C) 한 내용과는 분명히 다르며, 글쓰기의 주체는 타자가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될 연상 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8) 그는 창의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로 영역·현장·개인을 꼽았다. '어떤 사고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검열을 통과해야 하고, 해당 문화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Mihaly Csikszentmihalyi, 노혜숙 옮김, *Creativity*, 북로드, 2003, 30-33쪽.

9) 김성수, 「창의적 글쓰기 교육의 구성 방안 연구-대학 글쓰기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33, 332-334쪽 참조.

10) 생산적 결과물을 강조하는 창조성(創造性, creativity), 인간의 정신 능력이나 사고 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계발이 가능한 창의성(創意性, creative personality)으로 이해할 수 있다.(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719쪽) 따라서 창조(創造)와 창의(創意)는 엄연히 다른 의미이지만 본고에서는 '창의(創意)'로 수렴할 때도 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발명'의 의미는 아님을 밝힌다.

2) 연상 훈련을 통한 글쓰기

어떤 단어나 주제를 받고 글을 쓰려고 했을 때 단번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항에서는 연상 훈련을 통해 주제에 접근하는 방법, 주제에 맞는 글감을 모으는 방법, 글감을 잇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장의 길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상 관계는 언어 내적 의미 관계만이 아니라 주체로서 경험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연상이 진행되면서 행해지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조직·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표 1〉 연상 훈련 예시

가. 낱말제시 훈련 : 사랑
이별-바다-추억-사진-카메라-스마트폰-보이스피싱-우체국-편지-군대-푸른거탑
나. 무제한 연상 훈련 : 대학
교수, 학생, 과제, 시험 성적 / 장학금, 반값 등록금 / 알바 / 연애
다. 자유작문 훈련¹¹⁾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교수자 제시) / 산책가고 싶다. / 그래서 난 3초의 망설임 후 수업을 빼고 에버랜드를 갔다. / 에버랜드는 너무 넓어서 못 돌아다니겠다. / (중략) T express를 타러갔더니 줄이 엄청나게 길었다. / 그래도 타고 싶어서 1시간을 기다려서 내가 탈 차례가 됐다. / 설레는 마음으로 좌석 앉자 열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갑자기 레일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지만 서둘러 가방에서 주섬주섬 스파이더맨 옷을 꺼내기 시작했다. / 날렵하게 줄을 뿐아 바이킹으로 옮겨가는 데, 또 다른 스파이더맨을 마주쳤다. (하략)

‘가’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글이다. 낱말 제시 연상은 특정한 낱말을 주고 이와 관련된 쓰기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주어진 낱말의 앞 단어만을 보고 계속적인 연상을 하게 했다. 그러자 모든 단어가 주제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 연상을 보이기도 한다. 글쓰기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시작할 때는 글쓰기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그 표현도 잘 전달되지만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주제와 글도 멀어지고 있다. 즉 자신이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왜 쓰고 있는지 등 글쓰기와 관련

11) 본문에서 학생의 글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 또한 ‘/’ 표시는 학생 한 명이 쓴 글을 표시한 것이다.

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대학’이라는 주제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글이다. 사전을 그을 때마다 생각의 단절을 표시하게 했다. 소주제로 나누어보면 ‘수업 과정-등록금-방과후 생활-학생의 개인적 소회’로 나눌 수 있다. 앞선 ‘가’와 달리 단어 별로 묶을 수 있으며, 일종의 목차 구성과 같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한 편의 글을 쓸 때 글에 담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무엇을 쓸지 계획을 하고 쓴다면 필자도 독자도 쉽게 쓰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다’는 문장 이어쓰기 활동이다. 앞선 ‘가’, ‘나’의 활동이 단어 수준의 연상이라면 ‘다’는 앞의 문장을 읽고, 문장 쓰기를 하는 활동이다. ‘다’의 글은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예측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글이 진행되어 글쓰기의 묘미가 드러나기도 한다. 단순히 앞 문장을 이어주는 글이 있기도 하고, 반전을 피하는 문장도 드러나기 때문에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연상 훈련의 목적은 글쓰기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글쓰기에 접목하면 글감을 찾고, 그 글감들을 모아 목차를 구성하고, 그 목차를 통해 내가 쓰려고 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또한 서로의 글을 돌려 읽으며, 타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러한 기회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서로 관계 맺어 나만의 개성적인 내용으로 발휘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2.2. 창의성 발현을 위한 테마 찾기 사례

‘풍부하게 생각하기’, ‘비관적으로 바라보기’, ‘사물의 관련성을 찾아내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사물의 이면을 쳐다보기’, ‘뒤집어 생각하기’ 등 다양한 사고방식은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¹²⁾ 하지만 2.1의 내용만으로 창의성을 일깨우기에는 부족하여 ‘패러디 시 쓰기’, ‘기기를 활용한 의

12) 신형기 외, 『글쓰기』,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49-51쪽.

미 글쓰기'를 보충하여 글감을 찾는 다양한 활동을 시행한다.

1) 패러디 시 쓰기

이 활동은 문예창작을 위한 글쓰기가 목적이 아니다. 텍스트의 이해와 감상, 남들과는 다른 안목 갖추기,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의 집합이 이 수업의 방향이다. 학기 초반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긴 글의 텍스트보다는 짧지만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시를 감상한다. 그 예로 김춘수의 「꽃」과 그것을 패러디한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을 모두 보여준다. 원시의 주제와 의미를 변용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표현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선정하고, 그 시의 형식을 이용하여 시를 쓰도록 하였다. 이러한 패러디 시 쓰기¹³⁾는 '뒤집어 생각하기',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등 시를 쓰고, 주제와 의미를 분석하면서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꽃」을 패러디한 학생의 글이다.

〈표 2〉 패러디 시 예시

내가 그녀를 호텔방으로 부르기 전에는
그녀는 다만 한 명의 인턴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엉덩이를 그래프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로 와서 뽀이 되었다

내가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다오

13) 여기서 패러디란 '모방'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한다.(Linda Hutchen, 김상구·윤여복 옮김, *A theory of Parody*, 문예출판사, 1992, 14쪽.) 모방-수용-해체라는 예술 창작의 단계에서 수업의 목적에 맞게 '모방'의 단계까지만 진행하였다. 물론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라는 면에서 작품해설이 추가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오롯이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대신 본인이 선택한 작품, 자신이 쓴 작품의 해설까지 맡겨 '내가 이해한 방식',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본차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가서 나도 그녀의 뽀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가카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명의 인턴이 되고 싶다

제목: 뽀 (* 뽀이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뿜는 소리)

주제: 공직자들의 부패한 심리를 비판하고 풍자한 시

의미: 이번 달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사건을 토대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고자 이 시를 씀.

올해 초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고위관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묘사한 작품이다. 주제나 의미면에서 신선한 것은 아니지만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글의 형식보다는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시를 읽고, 쓰는 활동이 접목되어 자신의 표현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활동은 익히 알고 있는 작품을 통해 어렵지 않게 글을 쓸 수 있으며, 시의 주체와 그에 따른 시상 전개, 시대적·심리적 상황, 이성과 감성이 내포되어 있는 텍스트를 패러디하여 나만의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분석하게 함으로써 주제의 구체성을 획득하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기를 활용한 의미 글쓰기

이 활동은 고정 관념 벗어나기, 다르게 생각하기,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문제의식 갖기,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가 가능하다.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 등 SNS의 등장으로 글쓰기는 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나의 생각을 글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활동은 캠퍼스로 한정하였는데,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학교,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곳을 어떻

게 새롭게 바라볼까? 매일 다니는 이곳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다.

〈표 3〉 매체를 이용한 의미 글쓰기 예시

	<p>-제목 : ○○대에서 북유럽을 만나다 -사진 찍은 이유 : 공강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에서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해 쳐다보았는데, 그 모습이 갑자기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 익숙한 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의미</p>
	<p>-제목 : ○○대를 만지다 -사진 찍은 이유 : 무엇을 찍을지 몰랐다. 손을 펼쳐 그 대상을 찾다가 '아! 이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뒷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손을 찍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 내가 다니는 학교, 나를 발전시켜 줄 학교, 나의 미래가 있는 학교, 나의 학교, 사랑스러운 학교를 어루만져주고 싶다.</p>

첫 번째 사진은 '○○대에서 북유럽을 만나다'이다. 자주 찾는 곳이지만 무엇인가 찾으려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그 사진에 제목을 붙였다. 두 번째 손 사진은 제목이 없이 제출되었다. '시계 자랑', '내 손 예쁘다' 등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제목은 '○○대를 만지다'였다. 내가 사랑하는 학교를 어루만지고, 토닥여주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고 한다. 두 사진의 차이점으로 전자는 사진을 찍고 난 후 제목을 붙인 경우이며, 후자는 모든 것을 예측한 후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은 경우이다. 즉 '대상 → 주제'를 찾은 전자와 '주제 → 대상'을 찾은 후자의 결과이다.

‘풍부하게 생각하기’, ‘다른 과점에서 생각하기’, ‘사물의 이면 쳐다보기’와 같은 실제적이고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글쓰기의 한계를 매체의 발달과 함께 화려하고 감각적인 표현이 가능하여 실생활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이다.

2.3. 바른 문장 표현을 위한 방안

글쓰기에서 어려운 것은 ‘문장’의 개념일 것이다. 위의 내용이 ‘계획(글감 찾기, 주제 선정, 내용 결정 등)에 대한 논의’,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단계’였다면 2.3은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단계이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문법적 오류가 있다면 독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문장이란 자신의 생각이 오롯이 드러난 글, 문법적으로 맞는 글, 독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쉬운 글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쓰기 단계에 접어들어 논리적 쓰기와 문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언어 현상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방안의 특징은 어렵고 따분한 맞춤법 강의가 아닌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글에 나타난 오류의 사례를 찾아 직접 고치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즉, 자신들의 글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어정서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¹⁴⁾

〈표 4〉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 예시

<p>가. 이 책을 통해서 정치나 시사에 공부를 <u>①</u>않하던 내가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마키아벨리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u>②</u>되는 계기가 되었다.</p> <p>나. 우리는 그 결과만이 아닌 그 의도, 과정 모두를 보고 판단하여야 해서 그 의도가 <u>③</u>선행이었던 나의 행위는 선행이라 판단된다.</p>
--

14) 아래의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자료로 만들었다. 글쓰기 상담센터 TA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자료는 교수용과 학생용으로 만들었으며, 교수용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확인하는 용도였으며, 학생용에는 단순히 글만 나오도록 하여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아래의 예시는 일일이 사례를 들 수 없어 공통적인 오류를 보이는 것만을 제시한다.

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가 자신의 의도와 일치 ㉔될 지 안 될 지 알 수 없기에
 라. 과연 유년시절이 자급자족해서 나중에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㉕어렸을때 부터 너무 부모에게 의존만하고 혼자 살아가는 식으로 ㉖사는것도 문제가 있다.
 마. 비록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내가 ㉗삼만원을 준 동기는 분명 선행했다.

‘가~나’는 맞춤법의 오류 예시이며, ‘다~마’는 띄어쓰기의 오류 예시이다. ㉑은 ‘안’과 ‘않-’이 잘못 사용된 예이다. 용언 앞에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 ‘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언 ‘-않다’, ‘-지 않다’의 용법이 잘못 표현된 결과이다. 즉 ‘안’은 ‘아니’의 준말로 동사나 형용사 앞에 쓰이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로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쓰인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㉒은 ‘되-’와 ‘돼-’가 잘못 사용된 예이다. ‘되(다)’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는 것,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는 것을 뜻하는 동사이다. ㉓의 ‘돼-’는 ‘되--어’처럼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돼-’가 가능하지만, ‘-는’처럼 ‘-어’로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되-’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돼-’의 사용이 어색하거나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틀리는 경우가 있다. ㉔은 과거 ‘-었-’을 잘못 사용한 예로 ‘선행이었다→선행이였다’로 바뀌어야 한다. ‘-었-’과 서술격조사 ‘이다’의 결합에서는 축약되지 않고 ‘-이었-’이 그대로 나타나며,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었-’이 축약되어 ‘-였-’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의 ㉕은 ‘-다지’와 관련한 내용으로 어미 ‘-다지’는 붙여 써야 옳다.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지’는 띄어 써야 한다. ㉖의 ‘부터’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㉗의 의존명사 ‘것’은 명사이므로 ‘사는 것도’처럼 띄어 쓰고, ㉘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삼 만원’으로 고쳐야 옳다. 이처럼 띄어쓰기의 중요성을 다른 문학작품을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다.¹⁵⁾

15) 모 건설회사의 광고 카피.

‘살면서정이드는집’이
 ‘살면 서정이 드는 집’으로
 무심코 독해된 적 있다.

‘살면 서정이 드는 집’이

지금까지 2장은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기 위한 과정이었다. 1~4주 동안 창의적 활동을 하여 즐겁게 글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이것이 글쓰기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글쓰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대상과 주제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정도야 뭐’, ‘나도 해볼 만’한 쓰기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이론적 강의보다는 연상 훈련, 패러디 시 쓰기, 기기를 활용한 의미 글쓰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글감을 찾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다. 연상 활동 이후 맞춤법 오류 찾기는 5~7주에 진행되었다. 1~4주 동안 진행된 활동을 제출하고, 그 결과물을 학생들이 작성한 그대로 입력하여 같은 주제끼리 모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린 것들을 모았다. 자신의 국어 능력을 파악한 후 글쓰기 이론과 한글 맞춤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어휘력이나 문장력 등 올바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그동안 <사고와 표현>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사고’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사고’의 과정이 창의적 사고인지, 분석적 사고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결국에는 ‘표현’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렇듯 ‘표현’을 잘하기 위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조적이고 논리적 사고 능력과 어휘력·문장 구성력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즉 사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휘 능력은 발현되기 힘들며, 어휘 능력은 사고 능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사고의 매개체로서 언어 특히 어휘를 잘못 이해하고 단어와 문장을 잘못 사용하면서 올바른 사고 작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살면서 정이 드는 집’으로

바로 읽히기까지

얼마나 즐거운 오독이었던가

-강희안, 「즐거운 오독」의 일부, 『물고기 강의실』, 천년의시작, 2012.

16) 이재현, 「「사고와 표현」 교육의 언어학적 접근 방법에 대하여」, 『사고와 표현』 4-2, 185쪽 참조.

17) 최홍원(2010)에서는 <사고와 표현> 과목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고 관련 용어를 40가지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홍원, 「국어과 사고 영역 체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5, 321쪽.

3.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자기분석 4H 쓰기

학생들에게 ‘바다’를 그리게 하였더니 다양한 그림이 등장한다.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잔잔한 파도와 태양, 모래사장, 그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바다’, ‘강한 태풍을 이겨내고 있는 배가 떠 있는 바다’ 등이다. 모두 같은 단어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바다’의 모습은 모두 달랐다. 이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단어의 사용은 서로의 경험치에 따라 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말이나 글로 나타났을 때에는 의사소통의 불일치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양궁 선수의 화살이 과녁 중앙에 꽂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표현한 단어를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¹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문장, 글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

3장에서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과 학생들의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자기분석 4H’를 시도한다. ‘자기분석 4H’는 Hero-Hard Time-Heritage-Heart로 이루어져 있다. Hero에는 자신의 이력, 내가 영웅인 이유, 내가 영웅이 되어야 하는 이유, 나는 누구인지 등 자신을 간단히 소개 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부분이다. Hard Time에는 자신의 성장과정 중 어려웠던 시점을 쓰는 것이다. 단순히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힘들었던 순간이나 상황 등 구체적인 서술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가급적 ‘나’를 솔직히 드러내도록 요구하였다. Heritage에는 Hard Time을 이겨내는 과정, 극복 후의 경험, 좌우명 등 자신의 경험치와 유산을 적도록 하였다. Heart에는 내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쓰도록 하였으며,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부분이다.¹⁹⁾ 위의 과정은 ‘현재-과거-과거와 현재-미래’의 시간적 구성으

18) 이 외에 ‘죽음’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였다. 단순히 ‘슬프다’, ‘안됐다’, ‘힘들지’ 정도의 추상적이고 일반적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보다 구체적이고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19) 아래는 ‘자기분석 4H’ 글쓰기 양식이다.

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1. 성장과정에서 Hard Time 쓰기

기존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보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단어로 과제를 제출하거나 ‘자기’가 없는 자기소개서가 많다. 주제나 의미가 없는 단어들의 나열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분석 4H’- Hard Time을 작성하도록 한다.²⁰⁾ Hard Time 쓰기의 의도는 ‘결핍동기(deficiency-motivation)’를 찾는 것이다. 타자와의 교류, 주고받는 사랑,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과거와 현실을 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활동의 목표가 자신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원인을 찾아 ‘표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²¹⁾

자기분석 4H 글쓰기	
1. Hero	2. Hard Time
3. Heritage	4. Heart

‘자기분석 4H’는 <사고와 표현>의 교재에 있는 ‘V.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에서 자기소개서를 대신하여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에는 ‘자기’가 없었으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죽은’ 글쓰기이며, 자신의 내적 성숙을 위해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자기분석 4H’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항과 4항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효과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2항과 3항만 다루기로 한다. 참고로 이 양식은 2012-1학기 광상인, 허지민 교수가 <사고와 표현>의 강의 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출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럴 수 없었다.

- 20) 포웰(J. Powell)은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정서로 ‘불안감’, ‘죄책감’, ‘열등감’으로 제시하고 있다.(정종진,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시그마북스, 2009, 29-34 쪽.) 이를 기반으로 필자는 ‘자기표현’을 실행하기 위해 ‘학생들과 라포르(rapport) 형성’, ‘자존감 갖기’, ‘자기표현’ 단계를 설정하였다.
- 21) 이러한 결핍동기는 타인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다. 타인에 의해 동기부여는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에 의한 해결이 좋은 방법이다. 본인의 노력과 경험의 핵심에 바로 자기표현이라 생각한다. 즉, 자기표현을 통해 ‘나’의 기본 욕망과 본성을 확인하고 결핍동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결핍동기를 조정해나갈 수가 있다.(정기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한국언어문학』

〈표 5〉 Hard Time 예시²²⁾

가. 나는 몸과 마음이 무척이나 예민한 편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이 매우 힘들었다. 먼 지는 많고 환기는 안하는 좁은 교실이다 딱 찬 아이들, 강제로 해야만 했던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까지. 나를 억누르고 괴롭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 차라리 교우관계가 힘들었더라면 혼자서 익숙해져서 어떻게든 견뎌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 비염으로 365일 중에 340일은 감기를 달고 살며 잔뜩 예민해진 상태로 지냈던 것이었다. 예민해진 상태로 지내려니 다른 외부 환경들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 우울증이 생겼다. 그래서 상담도 여러 차례 받았었고 자퇴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나 여러모로 시기가 애매해진 탓에 꾸역꾸역 3년을 채워서 졸업장을 받았다.

나. 그렇게 부모님의 이혼 후,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외도와 먼저 자신을 버렸다며 저희를 보지 않겠다고 했다던 아빠... 그리고 술에 취해 저를 배에 품고 있던 엄마에게 한 폭행과 아파서 울고 있던 저의 옆에 시끄럽다며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한꺼번에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혼 전 맞벌이이셨던 부모님 덕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지내왔던 생활이 끝나고 엄마 혼자 버신 돈으로 조금은 힘들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어린 시절은 남들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빗 때문에 허덕이는 가정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힘들다고 해서 담배를 펴본 적도 없었고, 가끔은 집이 싫기도 했지만 가출을 해본 적도 없었으며, 학교에서도 사고 없이 바른 모범학생이었다. 내가 감히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가정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핑계로 일탈을 꾸는 학생들에게 지금의 어려운 환경여건은 미래의 너희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다.

기껏해야 22년뿐이 살지 않았지만, 내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운 시절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이다. 아버지가 사업과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잃고, 사채까지 손을 대었을 때 그리고 바람까지 나서 우리를 떠났을 때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들이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났다. 빗 값이라는 독촉전화, 그리고 값지 않으며 빨간 딱지를 붙이러 오겠다는 협박들, 아버지는 한순간의 실수로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으셨다.

‘가’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의 글로 학창시절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내용을 Hard Time으로 작성하였다. 자신의 몸이 아픈 상황, 교실 환경, 수동적 수업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 심리적 불안이 다른 주변 여건과 더해져 그 아픔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타협점을 찾아 겨우 졸업을 했고, 대학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 입학하였다고 술회하고 있다. 과제를 받고 평소 학

74, 535-536쪽 참조.)

22) 예시의 밑줄은 필자가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다.

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건강으로 예민해진 심리상태가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났고,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성격으로 굳어져 자신과 타인의 상황을 불완전하게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²³⁾

‘나’는 자연계열 학생의 글이다. 어린 시절 가정에 대한 일과 그로 인한 고민을 쓰고 있다. 부부싸움으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참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고 있다. 그러나 가정의 불화가 잠잠해질 무렵 또 다시 찾아온 폭력, 부모님의 이혼, 외도, 경제적 어려움까지 말 못할 고민들을 써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충분히 이겨냈고, 거리낌이 없기에 오히려 담담하게 글을 쓰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다’는 간호보건계열 학생의 글 역시 ‘나’처럼 가정환경에 대해 썼다. 빛,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밀줄처럼 현재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의 글과 차이는 밀줄처럼 ‘자신의 의지’를 썼다는 것이다.²⁴⁾ 이 글을 쓰면서 쓸까말까 고민도 많이 했고, 글쓰기를 결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써야할까 고민했으며, 자신이 쓰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면 글의 목적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하여 과제로 제출하였다.

생각으로는 무엇이든 하고 싶지만 신체적 여건으로 실패, 좌절, 회피의 경험, 가정불화로 인한 부모의 이혼 등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한 내용이 많았다. 내적 고민과 외적 환경의 불일치로 인해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분석 4H’-Hard Time에서 자기

23) ‘가’의 글은 문장력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자기분석을 위한 글쓰기에서 Hard Time은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느냐에 그 성공여부가 달렸다. 즉 자신을 감춘 상태에서 쓴 글은 아무리 문장력이 좋아도 다른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문장력이 떨어지더라도 ‘나’를 드러냈다는 면에서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글쓰기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글쓰기 후기도 전해주었다.

24) 이 부분은 Heritage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Hard Time에 쓴 이유를 물어보니 ‘독자를 설정하고 썼다고 전한다. 즉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과제 제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들려주고 그 아픔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까지 드러낸 것이다.

고백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여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3.2. 아픔을 이겨낸 채움으로서의 Heritage

자기를 표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의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기분석 4H’-Hard Time에서 아픔의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살펴보는 것은 ‘나’의 행동 양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예로 ‘자기분석 4H’-Heritage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Heritage 예시

라.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 곁에서 부족한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외할머니의 가르침으로 자라왔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학교 친구들 사이에 저에 대한 오해로 눈 초림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환경 속에서 저는 더 당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했으며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떳떳하게 나타내고 주변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까지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밝은 모습을 잃으려하지 않았습니

다.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는 순간에도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만큼 소수의 친구들로부터 내 행동에 대한 오해를 받았지만 함께 있어주었던 친구들에만 큰 신뢰가 있을 만큼 믿음을 주는 행동만을 했었다.

마. 집이 어려워지면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철이 들었다.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했고, 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는 일뿐이었다. 그래서 늘 전교 5등 안에 들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다녔다. 그때 아버지 빛으로 어려워진 집안 환경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킨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든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모범학생이 되었다. 사실 대학에 올 생각도 없었지만 선생님의 설득과 권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입학 당시에는 여자로서 돈을 벌 수 있고, 단순히 전망이 좋아 간호사란 직업을 택했다. 하지만 1년 1년이 지나면서 간호사란 직업에 사명감이 더해지고 있다.

‘라’의 글은 지적장애를 지닌 어머니와 부족한 환경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한다. 그로 인한 친구들의 멸시와 오해 등 어려웠던 시절을 언급한 후 자신의 Heritage를 적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당당

한 모습을 보여 친구들과의 믿음도 깊어지고, 교우관계의 중요성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것이 나의 행동변화를 만들었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쓰고, 그 어려움에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 오해의 해소, 대화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마’의 글은 부모의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버지 빛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이 지금의 나를 성장시킨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든다’라는 표현처럼 자신의 Hard Time이 어려움이 아니라 성숙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여성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아 선택한 전공이었지만 사명감과 윤리의식까지 높아져 간호사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털어 놓아 자기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하며, 자존감을 가져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위치가 불안하거나 불만으로 쌓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털어내고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²⁵⁾

3장의 Hard Time 예시는 초고를 이용하였다. 초고 작성 이후 상담을 통해 2~3번의 수정을 거친 후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즉 처음부터 메시지가 정확한 글도 있지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글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글쓰기에 대한 능동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자기를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기분석 4H’를 통해 글쓰기에 대한 자세를 가짐으로써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결국 글쓰기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했을 때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교양 수업에서 지향하는 문제 해결력 강화나 사고력 신장, 의사소통능력의 향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⁶⁾

25) ‘나’를 표현하는 일을 완수하였을 때 인위적인 관념·추상·이론·신념·문화적 관점 등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 정기철, 앞의 논문, 533-534쪽.

26) ‘자기분석 4H’ 글쓰기가 쓰기의 마지막이 아니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결핍의 과거가 아닌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4. 끝맺는 말

본고는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사고와 표현〉의 수업에서 창의적 사고와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자기분석 4H’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째, 글쓰기에 부담을 떨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에 있던 연상 훈련을 보충하였다. 창의성에 ‘즐거움’과 ‘호기심’이 핵심 요소이며, 보충활동으로 패러디 시 쓰기와 매체를 이용한 의미 글쓰기 활동을 하였다. 창의성이 ‘사고’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감 찾기’로 이어져 글쓰기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어정서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맞춤법 교육이 일방향이 아닌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문장에서 틀린 것을 찾아 고쳐보고, 그것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의 문제를 직접 찾아보는 것이 올바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된다. 더불어 참고문헌 찾거나 표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거창하고 화려한 문장을 구사한 글이 많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글이 많았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기분석 4H’를 시도하였는데, Hard Time에서는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을 진솔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였으며, Heritage에서는 Hard Time이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나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이었다. ‘자기분석 4H’를 작성하면서 사고와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거치면서 단어, 문장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글쓰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발전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나’를 바탕으로 타인을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아는 글쓰기로 나아가서 글쓰기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여긴다.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글을 쓰도록 유도하였다. 글쓰기의 목표가 쓰기 능력의 향상이 이겠지만 쓰기 능력의 향상은 '능동적인 쓰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양필수로 지정되어 1년 동안 배우게 되는 글쓰기 과목이 학생들에게 수동적 삶이 아닌 능동적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부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 창의적 사고, 표현, 연상, 패러디 시, 매체 이용 글쓰기, 자기 분석, 자기표현

<참고문헌>

1. 자료

- 공주대학교 기초교육센터 교재편찬위원회, 『창의적 사고와 표현』, 공주대학교 출판부, 2012.
- 서울대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1995.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 1999.
- 신형기 외, 『글쓰기』, 연세대학교출판부, 2003.

2. 논저

- 강희안, 『물고기 강의실』, 천년의시작, 2012.
- 곽경숙, 「대학 글쓰기 교재의 비교 분석」, 『한국언어문학』 68, 한국언어문학회, 2009, 111-135쪽.
- 김민정,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반성적 쓰기의 활용과 의의」, 『한국문학이론 과비평』 45, 2009, 451-480쪽.
- 김성수, 「창의적 글쓰기 교육의 구성 방안 연구-대학 글쓰기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33, 327-361쪽.
- 김인환,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프로그램」, 『어문논집』 61, 2010, 5-26쪽.
- 박은미, 「건국대 글쓰기 영역 수업 사례 연구」, 『사고와 표현』 2-1, 2009, 155-172쪽.
- 박호관, 「대구대학교 공통 교양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 탐색」, 『우리말글』 49, 2010, 87-109쪽.
- 박현이·김화선, 「협력학습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12, 2011, 333-358쪽.
- 박현희,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과 운영현황과 발전과제」, 『사고와 표현』 2-2, 2009, 165-190쪽.
- 송지연,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창의성 훈련 시론」, 『한어문교육』 26, 2012, 149-179쪽.

- 이양숙, 「자기서사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 문학회론과비평』 50, 2011, 169-189쪽.
- 정기철,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표현 글쓰기」, 『한국언어문학』 74, 한국 언어학회, 2010, 529-558쪽.
- 정종진, 『나를 찾아 떠나는 심리여행』, 시그마북스, 2009.
- 정혜영, 「공학교육인증제와 과학기술 글쓰기」, 『한국문학회론과비평』 45, 2009, 429-449쪽.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방향」, 『작문연구』 창간호, 2005, 111-136쪽.
- 최상민, 「대학 <글쓰기> 교과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전남대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학』 62, 한국언어학회, 2007, 183-206쪽.
- 최상민,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평가'의 문제」, 『한국언어문학』 64, 한국언어학회, 2008, 147-170쪽.
- 하병학, 「교양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정과 과제 - 가톨릭대학교의 사례 -」, 『사고와 표현』 1-1, 2008, 115-144쪽.
- James W. Pennebaker, 이봉희 역, *Writing to heal : a guided journal for recovering from trauma & emotional upheaval*, 학지사, 2007.
- Linda Hutchen, 김상구 · 윤여복 옮김, *A theory of Parody*, 문예출판사, 1992.
- Mihaly Csikszentmihalyi, 노혜숙 역, *Creativity*, 북로드,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Writing' Subject Plan

Joe, Yong-lim

This is goal <Creative Thinking and Expression> which is effective from 2012 academic years first term for writing capability elevation of final announcement was objective.

First, I attempt activity to foster initiative to rid burden about writing. That is association training, textbook to find subject of writing when parody poet writing and ideas and was visibility for short writing. Also Hangeul orthography activity that students feel constraint. This activity is achieved through sentence that oneself, who is not lecture way, make actually. There is problem that unilateral education of hangeul orthography is over theory by reason.

Second, message to wish to appear in sentence of students is not delivered properly. I tried self-analysis 4H by plan for this. Give meaning in oneself thinking and experience doing self-analysis, and the meaning attempted writing that give meaning about word, composition as pass way to make understood companion what it is.

【Key words】 : creative thinking, expression, associations, parody poet, writing, self-analysis, self-expression.

조용림

공주대학교 기초교육센터 강의전담강사

(302-865) 대전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아파트 303-304

전자우편 : coreamal@naver.com

이 논문은 2013년 7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8월 2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3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